

“전력 위기는 유산이 아니다”



유 창 선
전자신문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은 찾아왔다. 어린 시절 기억과 다르게 5월부터 덥다. 팔에 닿는 햇볕이 따갑다. 아마 9월까지 더위는 계속될 것이다. 여름이 길어졌다.

더울 때마다 시원한 커피숍 가는 돈 아껴서 2년 전 에어컨을 샀다.

삶의 질이 달라졌다. 더 이상 늘어진 러닝셔츠를 입고 선풍기 앞에 매달려 있지 않아도 된다. 땀으로 베갯잇을 적시다 잠에서 깨는 일도 없다. 당연히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다. 에어컨 때문에 거실에 모여 있다 보니 가족끼리 대화도 잦아졌다. 에어컨 덕이다. 이제는 조금만 땀이 나도 리모컨부터 찾는다.

전기요금 걱정은 하지 않는다. 전기요금이 덜 나오는 인버터 실외기 모델이기 때문이다. 기본 사용량이 적어서인지 밤새 켜도 전기요금 2만 원 정도만 더 내면 된다. 구입비가 부담되지만 한 달에 커피 몇 잔 안마시면 운영비는 뽑는다. 전력 위기라며 아무리 강조해도 남의 일인 이유다.

정부에서는 매년 전기절약을 골자로 한 여름철 전력수급대책을 내놓는다. 일반인에게 해당되는 건 에어컨 사용 자제다. 실내 온도가 아닌 설정 온도 섭씨 26도가 권고사항이다. 대부분 안 지키다. 가게에서는 손님 발길을 잡아야 하고 집에서는 남 눈치 볼 일이 없으니 그렇다. 게다가 기술 개발로 전기요금 부담도 예전에 비해 줄었다. 굳이 공익을 위해 더위를 참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정부의 고민은 해가 갈수록 더해질 것이다.

우선 늘어나는 수요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이다. 에어컨은 물론이고 집집마다 김치냉장고도 필수 가전이 됐다. 전기 사용량이 늘었다는 얘기다. 최근에는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인덕

선 레인지 보급도 급증했다. 모바일 기기 증가로 충전에 드는 전기도 만만치 않다. 심지어 자동차도 전기를 쓴다. 친환경 자동차라는 이유로 구입 지원금까지 준다.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같은 전기 먹는 하마까지 크게 늘었다.

공급도 여의치 않다. 여름철 전력 예비율이 10%가 넘는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값싸고 효율 좋은 발전기는 이미 '풀 가동' 중이다. 내일 당장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발전소나 발전 원가가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에 비해 수십배 비싼 발전소가 일부 남았을 뿐이다.

여름이 지나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과로로 인해 몇몇 발전소는 쉬어야 한다. 여름을 보내기 위해 봄·가을에는 정비를 해야 한다. 발전소 가동 상황이 늘 여름 같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12년 대정전 사고가 여름이 지난 9월 15일에 발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쪽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상적인 얘기다. 해가 뜨거나 바람이 불어야만 전기를 생산하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간은 더 많이 차지하니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에 둘 곳이 마땅치 않다. 당연히 원가도 비싸다.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현실에 맞게 올릴 수도 없다. 발전 방식은 친환경이지만 설치할 때 환경을 훼손하니 이마저도 정답은 아닌 셈이다.

물론 공급이 충분하면 고민할 일도 아니다. 정부에서 매년 대책을 세울 필요도 없다. 문제는 공급이 달린다는 점이다. 발전소 수명은 다해 가는데 발전소를 새로 짓기는 요원하다. 지자체와 환경단체가 원전은 안전, 석탄화력발전소는 환경오염을 이유로 막아선다. 잘 돌아가는 발전소도 폐지해야 할 판이다. 그렇다고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제대로 끌어오기도 어렵다. 밀양 사태에서 보듯이 송전탑 건설이 예전 같지 않다. 전기를 만들기도, 만든 전기를 가져오기도 힘들어졌다. 님비(Nimby)가 부른 참사다.

해법은 사실 간단하다. 공급량을 늘리거나 수요를 줄이면 된다. 하지만 현실은 공급을 늘릴 수도 수요를 줄이기도 어렵다. 전력 부족 문제가 공급 확대 제약과 값싼 전기요금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공익을 위해 내 집 뒷마당을 내주기도 싫고 전기요금을 더 내기도 원치 않는 것이다. 그저 정부더러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할 뿐이다. 대안을 내놓는 게 언제나 정부 몫일 수는 없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제시한 정책방안이 이미 대안일 수도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전기절약에 동참하거나 공급 확대에 협력해야 한다. 전력이 부족하면 지금은 조금 덜 시원하게 지내면 된다. 하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억지로 참고 견뎌야 할 때가 올지 모른다. 책임은 내가 아닌 후손의 몫이 될 수도 있다. 